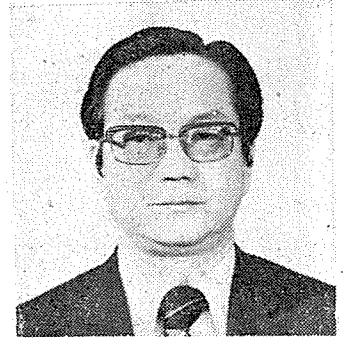


就任辭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不德하고 非淺한 本人이 會長이
란 重責을 맞게되었음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며 本人에게 이같은
榮譽를 주신 회원여러분께 衷心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修身에도 未及한 本人이기에 重責을 수행하는데 力不足함
이 많을줄 아오나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責任에 임하므로써
微力이나마 齒科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所望입
니다.



우리 大韓齒科醫師協會는 전체 齒科醫師들의 久遠의 母體입니다. 解放後 30여년에 걸친 많은
선배들과 여러분들의 정성의 結晶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비록 짧은 年輪안에서도 齒科醫師들에
대한 국민의 認識度는 근래의 각 齒科大學 입학시험에서 여실히 立證되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成長을 멈추지 않은 齒醫의 底力伸張의 구성요소는 齒協을 求心點으로 단
합된 우리들 齒科醫師의 또 다른 잠재력이라 自負치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先輩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의 받침돌로써, 모퉁이돌로써 이루어진 우리의 母體 齒協
은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存在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時點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母體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會員여러분!

우리에게 보다 높은 意志와 實利위주를 탈피한 謙虛한 인격과 使命感에 불타는 德性이 필요합
니다. 그후 우리들의 制度에서 機能에서 至高의 意志와 存在價値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目前보다는 장래를, 나보다는 公益을 權利보다는 義務를, 그리고 名利보다는 名分追求의 使命
感으로 理想을 向해 熱과 誠을 아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폭풍우가 크면 클수록 배(船)가 커야 생명의 안전도가 높듯이 우리들 齒科醫師도 齒協이라는
求心으로 똘똘 뭉칠때 齒科醫術의 향상도 도모될수 있으며 우리의 權益과 地位도 本然을 갖출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國家의 요구에도 副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齒科界에는 너무나도 많은 時急을 요하는 難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社會各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3천會員들의 團합이 필요하며 우리가 우리의 公約數
하나로 뭉칠때 그 힘이란 막강한 것이며 더불어 절실히 요구되는 協會義務의 일관성이 부과될 때
여러 問題해결에 참다운 결실을 보게되리라 믿습니다.

하나의 求心點을 찾아 나 스스로의 活路를 直視할줄 아는 지혜로써 會員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를 바라는 바입니다.

會員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神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78년 4월 일

池 憲 澤